

The Greatest Architect and Builder

(Hebrews 1:8~10)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s,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Most first generation Koreans came to this country with little knowledge of the American language and culture. They had to work hard and sometimes take positions beneath their skills and abilities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Yet, on average, they were able to purchase a house for their family within three to five years. It's a pretty amazing accomplishment considering all the obstacles they needed to overcom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hows how important it was for them to provide a secure environment for their children. They understood the value of a home and what it offers to a family.

Finding and buying a home is a very exciting experience. You have to find the right location for your family's needs and the right type of house for your family lifestyle. Should you get three or four bedrooms? Will a large or small kitchen suffice? Do you want to live in the suburbs or the city? Are there various transportation modes available? Should you buy brick, frame or stucco? Do you want a large or small yard to take care of? Can you afford to furnish a big or small home? There are so many things to consider in making such an important decision and investment for your family's future. We often hear from experts that buying a hom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inancial and lifestyle decisions that we will ever make.

During Abraham's life, families lived together. It was a necessity for survival and comfort. However, God called Abraham to leave the comfort of his home and the companionship of his relatives. (Gen. 12:1). Abraham had no idea where he was going or what he

would have to do. He was old and had no defensive means - no children or home. He had no knowledge of the land or of the language. He had to live in tents and follow in whatever directions God led him.

The word of God came to Abraham saying, "Look up at the heavens and count the stars - if indeed you can count them. So shall your offspring be." (Gen. 15:5). God also said to him,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Even though he was very old and his wife was barren and past childbearing years, Abraham believed God's promises.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that said,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and he was called God's friend.'" (James 2:23)

Abraham lived his whole life by faith. At the time of his life, he was one of, if not,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He could have built a mansion or a great city for himself and his family. By faith, he chose not to because he always looked forward to a better country - a heavenly one. A great city whose architect is God. (Heb. 11:16).

In the world, one can see beautiful buildings as the likes of the Sears Tower, the Empire State building, or Buckingham Palace in London. All these buildings are man made, needing repairs at one time or another. They are all temporary. However, God's city will not be so.

Just as He did for Abraham, God has prepared a special home for us. A holy city for us to live in eternally. Our house or place of residence now is only temporary. God has designed and built the most beautiful place imaginable. His heavenly city is described in

Revelation 21 as having a great, high wall with twelve gates, and with twelve angels at the gates. The twelve gates have twelve pearls, each gate made of a single pearl. The great street of the city is of pure gold, like transparent glass. The city does not need the sun or the moon to shine on it, for the glory of God gives it light. On no day will its gates ever be shut, for there will be no night there. Nothing impure will ever enter it.

In this city, God has prepared many rooms and Jesus has promised that he has reserved a special place for us. (Jn. 14:2). Therefore, it is with much anticipation that we should look forward to the eternal house in heaven that God has made for us. (2 Cor. 5:1).

There is no earthly dwelling that can compare to this special place. There is no architect or builder, other than God Almighty, who can design or construct such a home. Our own home may be comfortable and beautiful, but it is only temporary and truly nothing compared to God's eternal home. Only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can enter. (Rev. 21:27). Faith in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places our names in His book.

In closing, I challenge you to practice your faith by looking forward to God's perfect dwelling, as Abraham so righteously did. He has designed and built a permanent home to meet every need we have. Like Abraham, we must strive to be called the friends of God, to lay claim to that which was promised u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God is truly the greatest architect and builder! Everything is made ready, come Lord Jesus. 🙏



김성판 목사

가장 위대한 설계자와 건축가

(히 11:8~10)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거할 집

미국으로 이민갔던 한국인 1세대는 미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때때로 그들의 기술과 능력은 낮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들은 삼 년에서 오 년 이내에 그들의 가족들이 거주할 집을 구입합니다. 타국 땅에서의 많은 장애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성취인데, 그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장애들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집의 가치와 그 집이 가족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 것입니다.

거할 집을 결정하게 될 때

집을 찾고 사는 일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좋은 위치와 가족들의 삶의 양식을 만족시키는 편리한 구조를 가진 집을 발견해야 합니다. 침실이 서너 개쯤 있어야 하는가? 주방은 크거나 작거나 만족할 수 있는가? 시외에서 살 것인가 도시에서 살 것인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다양한가? 벽돌집을 살 것인가 철골이나 치장 벽토로 된 집을 살 것인가? 무엇인가 돌볼 수 있도록 마당은 넓어야 하는가 좁아야 하는가? 여유 있게 필요한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큰 집을 살 것인가 작은 집을 살 것인가? 이렇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목록들과 가족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니다. 우리는 주택 전문가들로부터 자주 듣는 것이 있는데,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제정과 가족이 영위해 나갈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막연한 길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그의 가족은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생존하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집에서 받는 위인과 친척들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버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창 12:1).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할지 또는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늙었고 자신을 지켜줄 자녀나 거할 집조차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떠나서 가라고 지시하신 땅에서 사용하던 언어나 그 땅에 대한 지식조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에서 살아야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그것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 15:5).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창 12:2). 비록 그가 매우 늙었고 그 아내 역시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이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옳았으니 그는 하나님의 빛이라 칭함을 받았나니”(약 2:23).

아브라함의 영원한 집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모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에,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호화로운 집을 짓거나 위대한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보다 나은 본향 집을 언제나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도시를 건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히 11:16).

하나님의 거룩한 성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어즈 타워’(Sears Tower; 미국 시카고에 있는 통신 판매회사 본사 건물)나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 빌딩, 또는 런던에 있는 ‘버킹엄 궁전’(Buckingham Palace)과 같은 아름다운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물들은 사람이 만들었고, 꽤 여러 번의 손질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성은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집과 주소는 일시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견고한 성을 설

계하셨고 건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이고, 문마다 진주가 하나씩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취가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문들을 낮게 두르지 말지 아니하는데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된 자나 가증한 자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자

이 성안에 하나님은 많은 방을 준비하셨는데, 그곳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요 14: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것은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고후 5:1).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비교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집을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설계사나 건축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집은 안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며, 진실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과 비교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계 21:27). 우리의 주님이시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집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완전한 처소를 바라보는 믿음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영원한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천구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위대한 설계자요 건축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주 예수께로 오십시오. ■

예수님처럼

이명하 (단기평신도 선교사)



1년 단기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수년 간의 헌신에 대한 고된 끝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첫 번째 행동이었다.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통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방글라데시에 간 것이다. 세 번째로 내딛는 걸음이었다. 여행의 목적도 아니라 그런지 방글라데시가 외국이란 느낌이 전혀 없었다. 마치 살던 동네처럼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서 다른 두 자매와의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결혼도 많은 갈등

속에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적응하는 것처럼, 자라는 환경, 생활습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란 걸 알았다. 그것은 나의 작은 단점이 다른 사람에겐 이해될 수 없는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사람이란 것, 용서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란 것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꿈틀꿈틀 왕성하게 살아 있는 사람이란 걸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같이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떠나시게 되며 나이가 제일 많은 내가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 때부터 내가 믿음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참 부담스러웠다. 대학시절부터 어떤 모임이라도 중심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기 싫어 주변만 맴돌던 아주 개인주의적인 나였기에, 몸이라도 아프면 그 스트레스는 한층 나를 짓눌렀다. 그것은 8월 초에 본국으로부터 단기팀이 방글라데시에 왔을 때가 절정이었다. 뚜렷한 사역의 진행이나 결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도사님이 말하셨던 부분이 생각보다 옳고 우리가 그 자리를 배우기는 역부족이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있을 때, 단기팀이 도착했다. 한 달 동안 단기팀을 위해 꾸준히 기도를 했지만, 강항으로 마중 나가기 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같이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했다. 그리고 2주가 지났다. 그리고 나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던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새로운 것이 없는 얘기라고 하겠지만, 방글라데시에 와서 나의 믿을 없음을 발견한 나로서 새로운 감각과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었다. 내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행위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진짜 사역이란 것.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때 일을 하신다는 것. 그건 마치 내가 씨 뿌리지 않고 힘들게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따는 것과 같았다. 정말 주님을 신뢰할 때.

선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였다. 내가 느끼기에 방글라데시가 한국과 다른 점은 그 곳에선 모든 사람을 복음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하는 작은 행동과 감정까지 주님 앞에서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지 않았는지 발견하게 된다. 주님은, 한 집에 살며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원하셨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전도할 것을 원하셨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방글라데시에서 나의 이웃에 살던 방글라 사람들 사랑하는 것. 하지만 내가 가진 사람으로는 사랑할 수 없었다. 이기적인 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라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었다. 예수님!! 사랑해요.

리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을 위해
역(逆)으로 기도하자!

제2일 11월 18일(주일)

레바논을 위한 기도

1. 레바논은 주변 아랍 국가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열쇠이고 핵심이다. 그곳에 있는 많은 선교 단체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자(시 72:16).
2. 하나님은 레바논의 무슬림들을 진정한 갈렐 가운데로 이끄는 그분이 진정한 누구인지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자.

제3일 11월 19일(월)

네팔 여성들을 위한 기도

1. 어렵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녀 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들과 과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경험하도록 기도하자.

제4일 11월 20일(화)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1. 젊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초대받도록 기도하자.
2.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크리스천들이 자신들 주변에 사는 무슬림들에 대해 더욱 자각하게 되고 더 많은 숫자의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도록 기도하자(마 9:37~38).

제5일 11월 21일(수)

무슬림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1.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무슬림들이 자신들 주변에 사는 무슬림들에 대해 더욱 자각하게 되고 더 많은 숫자의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도록 기도하자(마 9:37~38).
2. 많은 나라에서 온 더 많은 사역자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시오!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게 하도록 기도하자.

제6일 11월 22일(목)

중동 북서부의 위그루 족을 위한 기도

1. 위그루족과 한족 사이의 화해를 위해, 그리고 한족 크리스천들이 자신들 무슬림들과 관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요 13:16~18).
2.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자(행 9:3~6).

제7일 11월 23일(금)

카시불랑카로부부터 비르셀로까지를 위한 기도

1. 카시불랑카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모로코인들은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 스페인에 있는 수천 명의 불법 이민 무슬림들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 몇몇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다가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들이 무슬림들을 돕고 전도하기 위해 노력할 때, 지혜, 용기, 이해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자(요 4:21).

제8일 11월 24일(토)

소말리아를 위한 기도

1. 소말리아인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전쟁에 의해 고통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모든 아픔을 고치시도록 기도하자(시 61:1).

*위의 내용과 기도제목은 예수전도단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에서 영감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본 기도제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관 9

영원한 '나' -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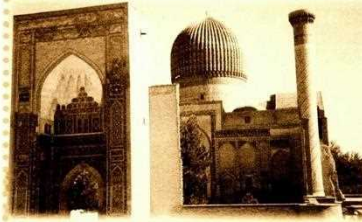
요즘 세상을 보면 유난히 '나'를 강조한다.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 이를 보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인 현대인들이 얼마나 개인적인가를 알 수 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나 '나'로 시작하는 것은 좋지만 '나'로 끝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나'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신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철학에서는 이미 기본적인 명제이다. '나'를 '내가 살필 때' 그 살필 때는 '나'와 살피자는 '나'는 누가 진정한 '나'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무한후퇴(Regression ad Infinitum)라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다. 부버(Martin Buber)는 (나와 너)에서 두 가지 관계가 세상을 존재하게 한다고 했다. 하나는 '나'와 '나'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그'와의 관계이다.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과의 관계에서는 '나'를 알 수 없다. 물질적인 것은 인격적인 것을 정의(定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와 '너'의 관계에 의존할 수는 없다. '너' 또한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가변성(可變性)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어느 것 하나 불변의 존재는 없다.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우주마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죽어간다. '그것'도 변하고 '너'도 변한다면 어디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충족시키려면 먼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성경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분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다. 또한 그분은 말씀하시고 들으시며 움직이신다.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그분은 영원히 나에게 '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너'로서 '나'를 만나시고 '너'로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신다. 인간은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짐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세상도, 인간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너' 이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전 15:10) (다음 주에 계속)

(안철덕 목사)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꿈꾸며

안복남 (청년1부, 73동기)



2001년 11월의 절판도 빠르게 흘러갔다. 대학부에서 갖 올라와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 영 낯설기만 했던 청년부에서 나도 벌써 내내이면 최고참이 된다. 그 동안 면회회 임원으로, 조장으로 봉사하면서 '섬김'라는 말이 참 무겁고 기만 하다. 선배들이 나에게 베풀었던 섬김의 모습들은 잠시 잠깐의 모습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일구어 나가는 모습들이었다. 칭찬으로 격려로 때론 중보기도로 나의 필요들을 하나님 안에서 채워 주었고, 당시 학생의 신분이 아닌 사 회인으로서 또한 더욱더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는 세상에서 나에게 모범이 되어 주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더욱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고 주위의 후배들을 같이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앞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점점 선배가 되면서 그런 모습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아 기쁨으로 돌봐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부족한 모습은 조장을 하면서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조를 일 년 후에는 전부 Q.T.를 하는 조로 만들겠다는 다부진 계획들은 온데간데 없고, 나조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고 G&S교 계 공부하듯이 급급하였고 주일날이 오히려 다른 날보다 저조하고 피곤한 날로 여겨질 뿐이었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일 반복되는 영적인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휴식과 안락함을 먼저 추구했다.

내가 주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함이 기쁨으로 섬기는 것에 매우 큰 방해물이었다. 한 해 동안 우리 조원들을 기쁨으로 잘 섬겼는지, 어떤 필요를 채워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기만 한다.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니가 지금 내가 당장에 급히 끝낼 일이 있으니까 이것 먼저 하고 다음에 하지 뭐'라며 우리 조리 피해 다니다가 점점 피해져서 나 자신의 위해, 조원들을 위해 무릎을 많이 꿇었어야 했 는데 조원들의 필요를 아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벅찼던 나의 모습. 지금도 가끔씩 우리 조원들을 보면 많이 미안하다. 특별히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에 전에는 잘 나왔는데 이사를 간 후로는 소식이 끊어지고 청년부에 나오지 않아 더욱 맘이 아프고 미안하다. 이렇게 섬김이라는 것이 나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존재대로 여겨졌다.

전에 같이 조장을 했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 주의 말씀을 달게 받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조원들을 섬기는 조장 친구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주는 모습. 그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믿으며 의지하는 모습, 또한 혼자 서울에서 자취 생활하면서 도 친구인 나도 다른 동기와 후배도 섬세하게 배려하고 챙겨주는 그 친구의 모습에서 참 평안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친구가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다시 한번 나에게 섬김의 기쁨을 일깨워 주 시고 시시때때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있던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 로 섬기며 살기를 소망해 본다.

만평

글·그림 이종원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김혜란 (청년1부, 73동기)



오랜 시간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전혀 혼동림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 대 주님은 어디쯤에 계실까 하고 물어보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늘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보고만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잊고, 명하니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묻어 있을 뿐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끔은 기다림에 지쳐

기도의 간절함이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저의 기도는 모놀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느끼는 예수님을 부모님 또한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섬김을 받아본 자는

조한글 (청년1부 교사)



나를 섬겨주시고 고마운 분들을 떠올려 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나의 필요를 바로 보시고 덴투멘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궁금해서 수시로 묻던 질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올바르게 답해 주셨으며, 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면서 상담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주셨고,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으로 나를 조심스레 지켜보시며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아낌없이 많은 것들을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나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변화를 겪었는데 그건 바로 머리로만 알던, 즉 내가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라는 거듭남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셨던 섬김의 분이 무엇인지를 직접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하였던 분을 만나게 된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섬김의 도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 주시나 합니다. 또한 그것을 받아본 자에게는 강한 전달력을 가지게 하시나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서만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섬김이 아니라고는 그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도를 전할 수 없으며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바로 깨닫게 된 나에게도 책임이 주어짐을 느낍니다.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만큼 그 배운 대로 섬기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낌없이 도와야 함을 다짐하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